



## 얼어붙은 강 부수고, 다리 놓고... 무엇도 우릴 막을 수 없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의 끝자락입니다. 이달 우리 군은 살을 에는 혹한 속에서도 실질적인 동계훈련으로 전투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산악군단 최정에 장병들은 협동훈련을 통해 전투태세를 점검했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서울의 한 방공진지에는 밝은 달 아래 장병들이 매서운 눈빛으로 수도 서울의 하늘을 지켰습니다. 공병부대 장병들은 쫄쫄 얼어붙은 강에서 폭약을 설치해 물길을 열고, 문·부교 구축 실력을 뽐내며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합니다. 코로나19로 올해 상반기 예비군 훈련은 취소됐지만, 준비태세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양동욱 기자



하늘 위 저격수 육군3군단 특공연대 공중저격수들이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실시한 흑한기 훈련 중 13항공단 수리온 헬기에 탑승해 공중 저격을 지원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물길을 만든다  
육군5공병여단 장병들이 강원도 철원군 도하훈련장에서 실시한 흑한기 파방훈련에서 얼어붙은 강에 폭약을 매설하고 있다. 한재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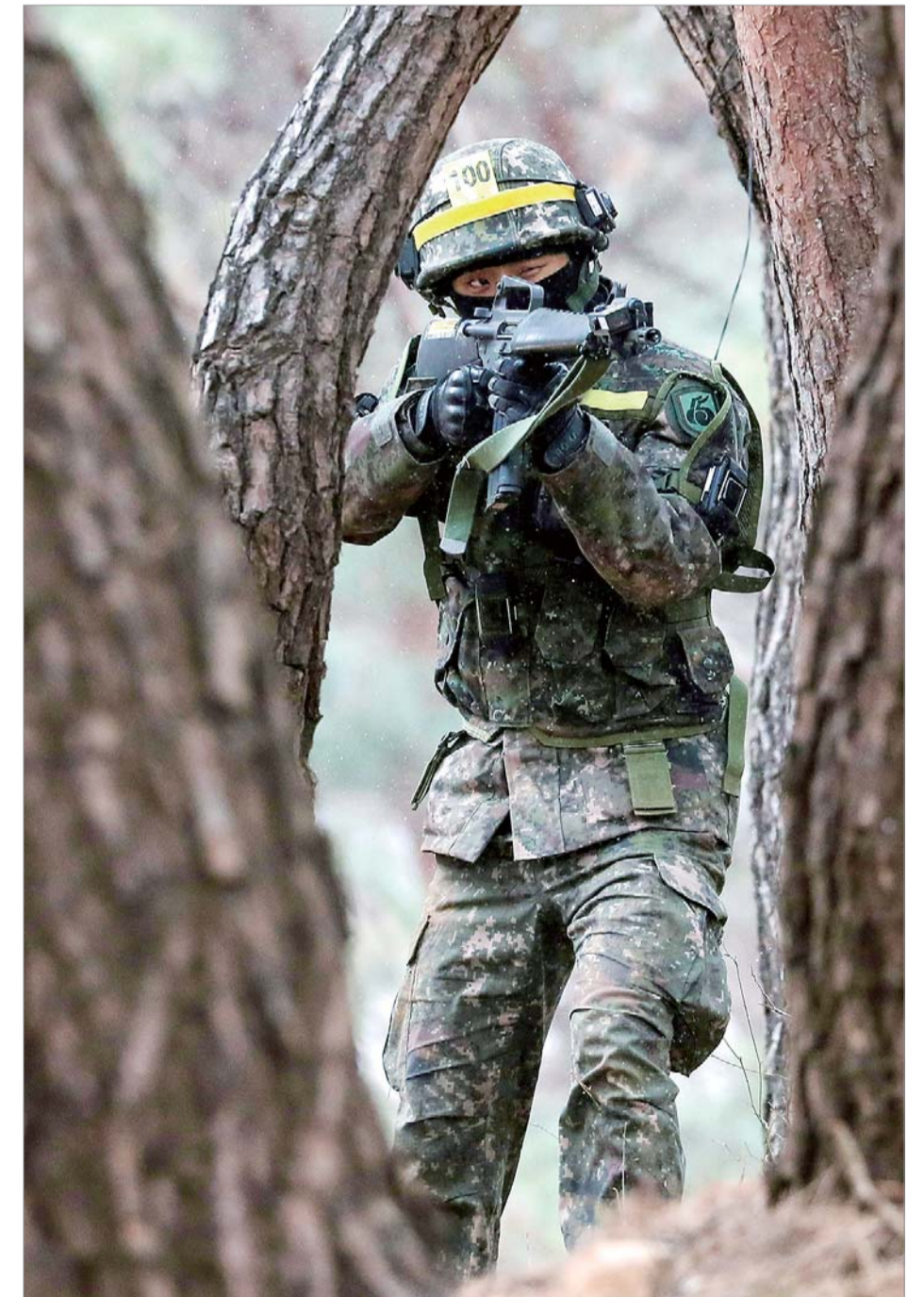
물자 수송 '빈틈없이'  
육군72사단 장병들이 작전지역 일대에서 동원준비태세 완비를 위해 실시한 흑한기 훈련 중 물자와장비·탄약을 증편 지역으로 옮겨 정리하고 있다. 양동욱 기자



문교 구축 '일사불란'  
육군2공병여단 장병들이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 일대에서 진행된 동계 전술훈련 중 문교를 구축한 뒤 수기로 방향을 유도하고 있다. 양동욱 기자



밤낮 없는 '대공방어'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예하1방공여단 장병들이 서울의 한 방공진지에서 발칸을 이용한 야간 대공방어 훈련을 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신중한 걸음, 매서운 눈빛 육군55사단 쌍마여단 장병이 작전지역 일대에서 진행된 흑한기 훈련 중 산악지역 작전 생방교전을 받고 있다. 이경원 기자